

광주FC 주세종 “후배들 재능 끌어 내겠다”



광주FC
후아힌 캠프를 가다

태국=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지난해 이적 전 국가대표 MF
새 포지션·전술 적응 ‘구슬땀’
“팀 승리 위해 최선 다하겠다”

광주FC의 베데랑 주세종이 또 다른 주세종을 보여주기 위해 달리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 새 동지를 틀었던 국가대표 출신의 미드필더 주세종은 올 시즌을 앞두고 3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팀의 중원을 책임지면서 후배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주축 선수이자 베데랑. 그는 태국 후아힌에서 기대감으로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주세종은 “훈련이 너무 힘들다”면서도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웃었다.

선수 등록 금지 제재로 소수의 인원으로 도전의 시즌을 열어야 하는 만큼 광주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 그만큼 몸은 힘들다.

하지만 이정규 감독 체제에서 새로 시작한 광주는 원팀으로 더 강한 광주를 만들어가고 있다. 선수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퍼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 순간이 즐겁다.

위기가 아닌, 기회에 주목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 정규 감독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발전된 팀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세종은 “문제점 같은 게 나왔을 때 선수끼리 의견 나누면서 수정하고, 훈련하고 또 수정하면서 하고 있다. 훈련의 의도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쉽지 않은 시즌 초반에 예상되지만 주세종은 후배들의 능력과 열정을 믿고 있다.

주세종은 “정말 능력 좋은 선수들이 있다. 어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다. 앞서 후배들이 이정효 감독님이랑 2~3년을 하면서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그런 걸 만들어 내는데 있어 개인 혼자 할 수 없다. 베데랑으로 옆에 서 도와주면 분명히 더 좋은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광주FC의 주세종(오른쪽) 등이 태국 아레나 후아힌 축구장에서 진행된 미니게임에서 공을 다투고 있다.

싶다”고 말했다.

그라운드에서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주세종, 그라운드에서의 모습도 중요하다.

주세종은 “광주에 내려와 이정효 감독님을 만날 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축구선수 외의 삶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싶어서 내려왔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배웠지만 축구선수로서 많은

욕심들이 생겼다.”며 “더 배우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

심들이 생겼다. 그 어느 때보다 축구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구를 경험하기 위해 이정효 감독을 찾

아 광주로 왔던 주세종은 이정규 감독과 또 다른 축구를 끌어내는 중이다.

이정규 감독은 “생각을 바꾸자고 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해보자고 했다. ‘주세종이 이것까지 할 수 있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다.”며 “기존에 보여준 주세종의 장점도 있지만 높은 위치에서 더 다양화하고 싶다.”고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했다.

주세종은 “시즌 시작해 봄아 알겠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를 맡고도 새로운 포지션에서도 훈련도 하고 다른 느낌의 플레이들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신다. 나도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감독님

이 공격 포인트 10개 얘기하면서 욕심을 내보려고 한다. 골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미드필더다. 도움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도움 6개, 득점 4개를 노리겠다”고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했다.

주세종 개인의 뒷풀이를 충분히 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은 주세종은 ‘도전’을 키워드로 재미있는 시즌을 다짐하고 있다.

주세종은 “광주는 매 순간이 도전이다. 광주는 항상 틀을 깨야 하는 팀이다. 또 한 번 우리 선수를 그리고 감독님, 구단에 미션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정

적으로 되겠지만 선수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생각을 합쳐서 타개하려는 마음이 크다. 재미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도전을 하면서도 강팀을 꾀롭히고 더 까다로운 팀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팀이다.”며 “베데랑으로서 후배들, 어린 선수들이 K리그1에서 더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선배로서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잘한다면 우리 팀 인원은 적지만 강한팀이 될 것이다”고 특급 미드필더와 베데랑 선수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민성호, 2살 어린 일본에 졌다

U-23 아시안컵 축구 4강전 0-1로 패
전술 해법·세대교체 희망 안 보여
아시안게임 4연패 ‘빨간불’ 켜져

이민성호가 두 살 어린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수준 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일(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일본이 2028년 로스엔젤레스(LA) 올림픽을 겨냥해 기준 나이보다 두 살 어린 21세 이하(U-21)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빠르게 결과다.

그러나 이번 대회 내내 드러난 이민성호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한일전 패배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AFC 아시안컵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아시아·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한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

대표팀은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의 정상 탈환을 통해 아시안게임 4연패를 향한 동력을 얻었다는 각오로 나섰으나 조별리그부터 이어진 딜더한 경기력은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란과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긴 대표팀은 2차전에서 약체 레바논을 상대로 4골을 몰아쳤지만 2골을 헌납했다.

3차전에서 두 살 어린 우즈베키стан에 0-2로 완패한 한국은 1승 1무 1패(승점 4)를 기록, 객관적 전력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해온 중국(승점 5·1승 2무)에도 승점에서 뒤지는 수모를 겪었다.

이민성호는 이란이 최종전에서 레바논에 0-1로



20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의 백가온(오른쪽)과 일본 선수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덜미를 잡히는 이번 덕분에 조 2위로 8강에 턱걸이 했으나 결국 4강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숙적’ 일본을 상대로 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전반 내내 사실상 ‘반코트 경기’에 가까운 열세에 슈팅 수에서도 1-10으로 밀리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린 한국은 결국 결승골을 현납했고, 후반 들어 공세를 강화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총 6득점·6실점에 그지며 공수 양면에서 하점을 노출한 대표팀은 결과적으로 확실한 전술적 해법도, 세대교체의 희망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과제만을 남기게 됐다.

지난 2024년 카타르 대회 8강 탈락으로 4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사를 겪고도 변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직전 대회 황선홍 전 감독에 이어 이번 이민성 감독까지, ‘2002 한일 월드컵 영웅’ 출신 지도자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인사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축구 선진국들처럼 연령별 대표팀에 특화한 유소년 전문 지도자를 발굴해 지휘봉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협회가 ‘이름값’ 높은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다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아시안게임 4연패는커녕, 한국 축구의 암흑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광주FC 부주장 최경록, 주장 안영규, 부주장 신창무.

〈광주FC 제공〉

안영규, 1년 만에 광주FC 주장 완장

K리그 통산 300경기·ACL 8강 이끈 ‘우승 캡틴’

부주장 신창무·최경록과 2026시즌 주장단 확정

안영규가 광주FC의 캡틴으로 복귀했다.

광주가 주장 안영규와 부주장 신창무·최경록으로 2026시즌 주장단 선임을 완료했다. 광주 레전드이자 ‘최장 기간 주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안영규는 1년 만에 다시 주장 완장을 맡게 된다.

2018시즌 광주의 캡틴을 맡았던 안영규는 성남을 거쳐 고향팀으로 복귀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정효호’의 주장으로 활약했었다.

최장 기간 주장인 안영규는 ‘기록’에서도 광주 대표 선수다.

안영규는 광주에서만 191경기를 뛰면서 지난 시즌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앞서 100경기, 200경기 출장 기록도 모두 광주 유니폼을 입고 달성했다.

안영규는 2022년 광주의 K리그2 최다 승점 및 최다승 기록을 이끌며 ‘우승 주장’이 됐고, 2023

시즌에는 K리그1 3위와 구단 최초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 등 성과를 냈다.

안영규는 다시 주장 완장을 차고 도전의 시즌을 이끌 예정이다.

2023년 광주에 입단한 신창무는 처음 부주장 을 맡아 선수단 전면에 서게 됐다. 팀의 고참 선수로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는 지난 시즌에는 23경기에 나와 데뷔 이후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다.

그는 또 ACL 8강 진출 및 코리아컵 첫 결승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신창무와 함께 부주장에 선임된 최경록은 2년 연속 주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장단 막내인 최경록은 베데랑과 짧은 선수단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